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24호 【주제 제25998호】 주제 107 (2018)년 5월 4일 (금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파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5월 3일 우리 나라  
를 방문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국  
무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왕의동지  
를 접견하시였다.



전망을 비롯한  
호상 판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폭넓고 깊  
이 있는 의견교환  
이 있었다.  
답화는 시종  
동지적이며 화기  
애에 한 분위기 속  
에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는 왕의동지와  
훌륭한 담화를  
나누면서 중요  
한 문제들에  
대한 조중의

제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  
사 리진군동지가 함께 참가하  
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는 왕의동지와 한 달여 만에  
다시금 상봉한데 대하여  
못내 기뻐하시며 반가운

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는 이어 왕의동지와 담화를

석상에서 왕의동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보내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정부와 인민의 뜨거운 인사를 견해를 재확인하고 의견을  
습근평동지의 따뜻한 인사를 전해줄것을 당부하시였다.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하시면서 존경하는

습근평동지와 협제적 중국인민에

게 드리는 자신과 우리 당과

교환한데 대하여 커다란  
접견에서는 조종 두 나라  
사이의 단결과 전통적인 친선  
협조관계를 전면적으로 계승  
하고 심화발전 시킬데 대해서 와  
조선반도정세흐름의 발전방향과

본사정치보도반





# 당적지도를 짜고들어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산활성화의 동음이 세자게 울리게 하자

## 혁신적인 안목, 진취적인 일본새

회창군은 두해전 모범지방공업군칭호를 달았다. 성과속에는 반드시 미경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방에서 역사적인 창성련석회의정신을 구현하여 자체의 힘으로 삼립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한 작전을 주도해

하겠다는 확신에서 찾는다.

중심고리포착과 이신작칙

중심고리를 옮겨 포착하는 것은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한 근본방법이다.

군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점은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심고리를 옮겨 포착하고 그것을 풀기 위한

때마다 일군들이 일제를 메고나가게 한 것이다.

군당위원회는 전력생산과 원료기지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활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판권제문제로 보고 이것을 중요

한 목표로 반영하였다.

두해전 정산발전소를 현대화 할 때였다. 이를 풀기 위해 국가과학원의 연구사가 내려왔다.

군당위원회는 책임성이 높은 군인위원회일군과 정성발전소, 지배인, 노동자를 끌어 한 강력한 기술혁신력을 푸는

때마다 일군들이 일제를 메고나가

보았다.

정신지구와 대체지구에 원료

기지로 조성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군당위원회일군

원장이 직접 일군들과 함께 하

루에 수립된 신발방으로

내려면서 30여 청보의 원료기지

지를 찾았다. 이 소식은 원료

기지조성을 위한 전투에 벌어졌다.

군당위원회일군들은 생산자

대 청년들대원들과 지방공업

공장의 일군들에게 일과보

를 보내며 그들이 매주 문화

회관에서 열리는 혁신자축하

밀하게 하고 지방경제를 특색 있게 밟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 비결을 핵사적인 창성련석회의정신을 당사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실천에서 나타나게 한 군당위원회일군들의 진취적인 사업기풍에서 찾는다.

밀하게 하고 지방경제를 특색

있게 밟전시켜야 합니다.』

고무된 기술혁신조성원들은 부

록하는 전투를 벌여 밟전소를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앞당겨 끌어냈다. 하여 전력생산율을 높

여 포착하고 그것을 풀기 위한

때마다 일군들이 일제를 메고나가

게 한 것이다.

군당위원회는 전력생산과 원

료기지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활을 높

여 포착하고 그것을 풀기 위한

때마다 일군들이 일제를 메고나가

게 한 것이다.

군당위원회는 전력생산과 원

료기지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활을 높

여 포착하고 그것을 풀기 위한

때마다 일군들이 일제를 메고나가

게 한 것이다.

군당위원회는 전력생산과 원

료기지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활을 높

여 포착하고 그것을 풀기 위한

때마다 일군들이 일제를 메고나가

게 한 것이다.

군당위원회는 전력생산과 원

료기지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활을 높

여 포착하고 그것을 풀기 위한

때마다 일군들이 일제를 메고나가

게 한 것이다.

군당위원회는 전력생산과 원

료기지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활을 높

여 포착하고 그것을 풀기 위한

때마다 일군들이 일제를 메고나가

게 한 것이다.

군당위원회는 전력생산과 원

료기지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활을 높

여 포착하고 그것을 풀기 위한

때마다 일군들이 일제를 메고나가

게 한 것이다.

군당위원회는 전력생산과 원

료기지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활을 높

여 포착하고 그것을 풀기 위한

때마다 일군들이 일제를 메고나가

게 한 것이다.

군당위원회는 전력생산과 원

료기지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활을 높

여 포착하고 그것을 풀기 위한

때마다 일군들이 일제를 메고나가

게 한 것이다.

군당위원회는 전력생산과 원

료기지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활을 높

여 포착하고 그것을 풀기 위한

때마다 일군들이 일제를 메고나가

게 한 것이다.

군당위원회는 전력생산과 원

료기지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활을 높

여 포착하고 그것을 풀기 위한

때마다 일군들이 일제를 메고나가

게 한 것이다.

군당위원회는 전력생산과 원

료기지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활을 높

여 포착하고 그것을 풀기 위한

때마다 일군들이 일제를 메고나가

게 한 것이다.

군당위원회는 전력생산과 원

료기지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활을 높

여 포착하고 그것을 풀기 위한

때마다 일군들이 일제를 메고나가

게 한 것이다.

군당위원회는 전력생산과 원

료기지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활을 높

여 포착하고 그것을 풀기 위한

때마다 일군들이 일제를 메고나가

게 한 것이다.

군당위원회는 전력생산과 원

료기지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활을 높

여 포착하고 그것을 풀기 위한

때마다 일군들이 일제를 메고나가

게 한 것이다.

군당위원회는 전력생산과 원

료기지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활을 높

여 포착하고 그것을 풀기 위한

때마다 일군들이 일제를 메고나가

게 한 것이다.

군당위원회는 전력생산과 원

료기지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활을 높

여 포착하고 그것을 풀기 위한

때마다 일군들이 일제를 메고나가

게 한 것이다.

군당위원회는 전력생산과 원

료기지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활을 높

여 포착하고 그것을 풀기 위한

때마다 일군들이 일제를 메고나가

게 한 것이다.

군당위원회는 전력생산과 원

료기지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활을 높

여 포착하고 그것을 풀기 위한

때마다 일군들이 일제를 메고나가

게 한 것이다.

군당위원회는 전력생산과 원

료기지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활을 높

여 포착하고 그것을 풀기 위한

때마다 일군들이 일제를 메고나가

게 한 것이다.

군당위원회는 전력생산과 원

료기지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활을 높

여 포착하고 그것을 풀기 위한

때마다 일군들이 일제를 메고나가

게 한 것이다.

군당위원회는 전력생산과 원

료기지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활을 높

여 포착하고 그것을 풀기 위한

때마다 일군들이 일제를 메고나가

게 한 것이다.

# 모든 력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모내기준비를 힘있게 다그치자

## 주 라 격 전 방 의 승 전 고 를 우 리 가 먼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강국건설의 주관격전  
방면은 농업전선에서 과학농사  
법률을 힘있으고 다수확률을  
를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  
전원회의 결정원칙을 위한 두성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분야엔  
언택별이 불철영농전투로 풀풀  
고 있다.

별인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

### 경험교환의 계기가 되도록

높은 목표도 놓은 방법론이  
있어서 절명할 수 있다.

청단군의 일군들은 이렇게 문제  
를 제기하고 모든 농촌들에서  
불철영농전투를 힘있게 벌리기  
위해 사력을 기울였다.

집단적혁신은 앞에서 서기, 따  
라배우기 운동, 경영화운동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앞선 단  
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기록해  
신속히 소개하고 일관화하는 것은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치우쳤다.

책임일군들은 방도의 하나님을  
매 농장의 직업초급밀군들까지  
참가하는 화상회의에서 찾았다.

지난 시기 경험을 보아온 그  
들은 화상회의 나란히 성과와  
경험을 풍화해주는식으로 진행  
해 떠보다 앞선 단위의 경험파  
모범적인 초기밀군들의 긍정성  
행보로 알려줄 때 실하고 더  
겼던 것이다. 또한 모든 농장의  
일군들이 과학농사작전을 펼쳐

### 연 백 벌 안 의 일 군 들 의 사 업 에 서

들은 당시 알파행산복료  
를 반드시 경영하여 사회주의 수  
호전의 최전방인 농업전선에서  
기여이 대승전고를 풀려는 불  
열의 밀에 불철영농전투에서 성  
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불철영농전투에서 현실적인  
방도를 찾아내고 원활하게 실천해  
나가고 있는 이웃 일군들의 혁신  
적인 사업기풍이 훌륭한 성과를  
얻고 있다.

군의 기상기후조건에서 베이식  
폐기기는 품종별로 조금씩 차  
이 있지만 대체로 8월초부터  
중순까지이다.

그것은 이 시기에 이삭폐기기  
가 전행되어야 유품기에 유리한 조  
건이 미련되어 소출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여  
름 때 밤과 밤의 기온이 알맞게  
되어 정보당 수확고가 높아질 수  
있다.

일군들은 어기에 기초하여 이  
른손모와 영양단지모기르는 날  
자, 모내기 이후 이삭폐기기의  
농장일군들을 앞장에서 서시  
이 방법을 알아들었다.

올해 군에서는 영양단지군모와  
논비니 짹은모, 원그루모기르

기를 이용해 어려자기 앞선 모  
기르기방법을 받아들였다. 이런

### 정 척 한 분석판단과 읊은 결심재택

는 것과 함께 그 집행에서 직업  
반장, 본조장들 모두 맡은 일을  
전적으로 책임질 것으로 보다  
각성시켜주는 것이 중요했다.

책임일군은 화상회의가 단순  
히 사업포지니 흥미를 위한 것인  
아니라 따라온 시기, 따라배우기  
운동, 경영화운동을 고소개하는  
계기로 되게 할 것을 점검했다.

그리하여 불철영농전투가 시작  
되면서 부터는 화상회의를 구체  
적이고 상세한 자료들을 가지고  
특별히 전진해 하였다. 이 사업은  
시작부터 실효가 있고 농업근로  
자들의 반향도 좋았다.

우선 씨뿌리기와 논갈이전투  
에 진입한 단위들에서 좋은 방  
법과 경험들이 나오면 화상회의  
를 통하여 즉시 온 군에 일반화  
하였다.

실례가 있다. 영산협동농장에  
서는 철가게를 리용하여 많은  
기름을 절약하면서도 논갈이를  
질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이

### 능동적이며 창조적인 작전과 지휘로

#### 화 대 군 에 서

단예 농사경험에 기초한 계획이  
있다.

군일군들은 이론군모씨뿌리  
기술을 앞두고 품목을 통해 당  
에 제시한 알파고기고를 풀어  
점검한 바 상한 각오와 열정으로  
분발해나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농업  
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야 합니다.»

풍요한 가을은 모판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깊이 명심한 리영철,  
박봉태 등무를 비롯한 군현동농  
장경영위원회원회 일군들은 군당위  
의 지도밑에 올해의 불리한  
환경상기상기후조건에 맞게 영농  
전투를 성공적으로 보장하기 위  
한 작전지 지휘를 해나가고 있다.

벼모판씨뿌리기 일정계획을  
제기하고는 품목을 제기하고는  
여러 단위들을 직접 돌아보며  
토양온도를 측정해보았다. 역시  
토양온도는 씨뿌리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조성된 경황에 맞는 군직인  
씨뿌리기 일정계획이 다시 세워  
졌다.

이것을 놓고 군일군들은 다시  
한번 경심을 차렸다.

과학적인 측정과 분석에 기초하  
여 농시작전과 지휘를 농동적으로  
짜고들어아 당시 제시한 높은 알  
파생산목표를 점검할 수 있다.

이런 비상한 자작과 드높은  
의지를 안고 군일군들은 베모  
판은 씨뿌리기 상기후조건에 맞  
게 씨뿌리기전투작전과 지휘를  
해나가고 있다.

4월초에 예견되는 기상기후  
자료를 담은 즉시 씨뿌리기  
기술의 파악방법지도를 통장별,  
작업반별, 본조별로 까지 심화시  
키며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전  
개된다.

우리 나라선수들이 3일 귀국하  
였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된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제20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 학과학  
도로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를 전정한  
바구니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 자기 힘을 굽게 믿고 떨쳐나 행복의 래일을 앞당겨오자

## 우리는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이다

문천강철공장 강철직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처럼  
수행의 유흥과 당정책을 결사판  
철해나가자!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최대로 양양시키는 이 부름이  
온 나라를 전감하며 울려지고  
있다.

당과 수령을 굳게 믿고 따르  
는 두루한 신념과 결사의 각오,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자  
례행정의 두성기증, 창조분야로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임원을 자랑한 현실토 꽂아  
우기 위한 두성에서 새로운 시  
대정신을 창조한 원원의 당원  
들과 근로자들, 그 자랑스럽고  
미래에 대오속에 분분한 강원  
강철직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  
도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족자강의 정신을 가져  
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끌어  
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  
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강철직장의 일군들과 종업원  
들이 일터처럼 의 우는 말이  
있다.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인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있을 수  
없다.』

이런 신념과 의지를 갖고 그  
들은 자력생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철강재생산정상  
회의 풍음을 힘 있게 울려가고  
있다.

지난 2월 탈피기의 작업모습  
을 유심히 지켜보는 직장장 최  
현오동부의 안색은 밝지 못했다.  
설치한 한에 올라온다보니 본  
체의 여기저기에 썩여진 자리  
들이 있어 불편이 있는데다가  
방지가 자주 빙이나 탈피기술이  
높지 못하였다. 탈피기로 교체  
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였다.

직장자체의 힘으로 탈피기를  
제작할 것을 결심한 최현오동부  
는 기술자, 종업원들과 마주쳤  
았다.

설비제작에 필요한 협장을 비  
롯한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다. 그렇다고 보장해줄 때까  
지 기대될 수는 없다. 방도는 무  
엇이겠는가.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하는 직  
장장을 바라보면 기술자, 종업  
원들과 솔직한 힘을 더해나가  
야 한다는 점이었다.

『힘겨울 때마다 나는 경애하는

원도사람이다 하고 의워보곤 했  
습니다. 제가 그 부름앞에 뺏겼  
수는 있어 해주시십시오.』

최현오동부의 가슴속에서 뜨  
거운것이 부단히 울렸다. 수령에  
대한 부름은 풍성과 자력자강  
의 정신을 제작화한 강원도사  
람들이 어찌 자기의 전투와자  
를 헌치하도 빚어날 수 있으랴.

탈피기제작은 봄 속도로  
진척되어갔다. 그들은 자그마  
한 힘이라도 있을 때마다 용접부  
위들을 다시 금 꾸준히 검사했  
고 염마와 도색도 미끈히 해놓  
았다.

새로 제작한 탈피기의 시운전  
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당시 강  
철직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다시 금 가슴속길이 새겨안았  
다.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막아  
나 오랜 시간을 용접했는지 두  
눈이 뽐시 중현되어있었다. 그  
는 조평희동부의 손에서 용접기  
와 용접모자를 빼앗으며 억지  
나침으로 등을 평실히었다. 무조  
건 3일동안 휴식할것을 지시하  
는 직장장에게 조평희동무는 이  
렇게 말했다.

인민들이 일하고 힘들어 하는  
환경에서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온전히 힘을 더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는 아시는 강

급의 드높은 생산열의와 깨끗  
일본새, 들품한 배심을 엊불수  
있다.

강철직장은 자체의 후방기  
지를 블록히 꾸려놓고 종업원  
들에 대한 후방공사사업을 잘  
하고 있는 단위동부의 하나이  
기도 하다. 번듯하게 구린 집  
집승우에서 달은 고기를 생  
산하여 종업원들에게 풍급하  
고 있으며 부엌발에서 나오는  
갖가지 생산물들이 종업원들  
의 생활을 풍족하게하는데 이  
바지되고 있다.

그야말로 남의것이란 추호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고 자기  
땅에 밭을 듣는다니 놀라울 뿐  
이었다.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막아  
나 오랜 시간을 용접했는지 두  
눈이 뽐시 중현되어있었다. 그  
는 조평희동부의 손에서 용접기  
와 용접모자를 빼앗으며 억지  
나침으로 등을 평실히었다. 무조  
건 3일동안 휴식할것을 지시하  
는 직장장에게 조평희동무는 이  
렇게 말했다.

『힘겨울 때마다 나는 경애하는

정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국도체에 마련  
해놓은 축산기지와 양  
어기지, 온실과 버섯생  
산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먹을 보게 하여야 합  
니다.』

얼마전 광장에서 생산  
하기 위해 아끌다리를 에쓰는 광  
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을 시당부  
원회일군들이 적극 도와주고 때  
밀어주었다.

하여 광장에서는 해마다 버섯  
생산량을 무려 늘어있으며 올해  
에는 1·4분기계획을 15·5%  
로 넘쳐 수행하고 광장으로 계급  
원들은 철야동무를 벌었다. 한  
쪽으로는 재건공사를 진행하면  
서도 버섯생산을 중단하지 않고  
함께 밀고나갔다.

『지구인동지, 정말 꿈  
만 같습니다. 개진공사의  
첫장을 막을 때에는 깨마  
득하더니...』

현장기사 김윤희동무가  
하는 말이었다.

정말 갑작히 새로왔다.  
몇해 전 어느 한 단위에서 리  
용하여 전통을 넘겨받았을 때 그  
들은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  
지 미처 잘 알수 없었다.

겁풀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  
게 일신하는 사업을 미루하여 버  
로 하기 위해 현장기사 김윤희

송립시버섯공장에서

쇳생산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설비문제며 원료, 자재  
문제 등 할 일이 정말 많았던 것  
이다. 바로 이러한 때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세계로 진출한 정양시비섯공장(당  
시)을 찾으셨다는 소식에 절  
하게 되었다.

인민생활문제를 두고 얼마나  
마음쓰시었으면 새해벽두에 가보  
서야 할 곳을 보셔서는 알게 되었다.

이렇게 더 많은 버섯을 생산  
하기 위해 아끌다리를 에쓰는 광  
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을 시당부  
원회일군들이 적극 도와주고 때  
밀어주었다.

하여 광장에서는 해마다 버섯  
생산량을 무려 늘어있으며 올해  
에는 1·4분기계획을 15·5%

로 넘쳐 수행하고 광장으로 계급  
원들은 철야동무를 벌었다. 한  
쪽으로는 재건공사를 진행하면  
서도 버섯생산을 중단하지 않고  
함께 밀고나갔다.

『지구인동지, 정말 꿈  
만 같습니다. 개진공사의  
첫장을 막을 때에는 깨마  
득하더니...』

현장기사 김윤희동무가  
하는 말이었다.

정말 갑작히 새로왔다.  
몇해 전 어느 한 단위에서 리  
용하여 전통을 넘겨받았을 때 그  
들은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  
지 미처 잘 알수 없었다.

겁풀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  
게 일신하는 사업을 미루하여 버  
로 하기 위해 현장기사 김윤희

동무가 바친 풍구의 낫과 밤은  
얼마이며 풍광전봉을 하루빨리  
개진하기 위해 광장일군들과 종  
업원들이 훌리고 훌린 땅탕을 온  
그 얼마이면.

그리하여 광장은 기간에 모든  
생산전봉들이 표준설계에 맞게  
일신되었으며 여러 제재실들에  
서는 소탕한 버섯총이들이 피어  
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더 많은 버섯을 생산  
하기 위해 아끌다리를 에쓰는 광  
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을 시당부  
원회일군들이 적극 도와주고 때  
밀어주었다.

하여 광장에서는 해마다 버섯  
생산량을 무려 늘어있으며 올해  
에는 1·4분기계획을 15·5%

로 넘쳐 수행하고 광장으로 계급  
원들은 철야동무를 벌었다. 한  
쪽으로는 재건공사를 진행하면  
서도 버섯생산을 중단하지 않고  
함께 밀고나갔다.

『지구인동지, 정말 꿈  
만 같습니다. 개진공사의  
첫장을 막을 때에는 깨마  
득하더니...』

현장기사 김윤희동무가  
하는 말이었다.

정말 갑작히 새로왔다.  
몇해 전 어느 한 단위에서 리  
용하여 전통을 넘겨받았을 때 그  
들은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  
지 미처 잘 알수 없었다.

겁풀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  
게 일신하는 사업을 미루하여 버  
로 하기 위해 현장기사 김윤희

다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  
회가 있을 때마다  
파산군의 거  
리와 마을들을

훌륭히 꾸리고  
눈밭들을 잘 정

리하고 관리함에 대하여 교시하

시었으며 언제인가는 파산군의  
마을들이 깨끗하고, 평안북도  
에서 제일 깨끗한 것 같다고 본  
에 넘치는 친화도 주시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토록  
잊지 못해하시는 우리 군에 이  
세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  
면 우리의 손으로 더 밝고 환하  
게 꾸민 거리와 마을들을 보여  
드려야 하지 않겠소.』

군단책임일군의 이 말에 연구  
집단성원들은 저지들이 나서자  
관고함에 대해서, 자기들이 생  
산하는 외장제에 미끼와 할 깨  
죽여는 거듭나는 난관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광장에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빙틈없이 짜고  
놓았습니다. 광장에 빙틈없이 짜고 놓았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광장에 빙

